경제혁신

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 도 자 료

희망의 새시대 http://www.motie.go.kr

2015년 4월 9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과장 유법민(044-203-4520), 신유철 사무관(4525)
에너지기술과 과장 문양택(4540), 박천재 사무관(4544)

"산업부 기술개발(R&D) 사업 진입장벽 낮아져 중소기업 신규 참여가 크게 증가"

- 2015년 개념계획서 접수·평가 결과 및 향후 평가방향 발표

- **과제경쟁률 : 2014년 4.3 : 1 → 2015년 5.2 : 1**
- **신규 참여 중소·중견기업 수 : 2014년 263개 → 2015년 653개**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윤상직)가 기술개발(이하 R&D) 효율성 제고 및 과제 신청자 편의 제고를 위해 **2015년에 개념계획서 제도를 신규 도입**한 결과, **과제 경쟁률이 증가**하고, **중소·중견기업 신규 참여가 크게 증가**한 것으로 나타났다.

○ 개념계획서 제도*는 사업계획서 평가에 앞서 **아이디어 중심**으로 작성한 **5쪽 내외 개념계획서를 먼저 평가**하는 것으로,

*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, 에너지기술개발사업,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등 3개 사업 256개 과제(품목 지정형, 자유 공모형)에 적용 (1,386억 원 규모)

○ 개념계획서 단계에서는 복잡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므로 **과제 신청자**, 특히 **정부 R&D 경험이 많지 않은 중소·중견기업의 참여가 쉬워져 정부 R&D 진입장벽이 낮아지고**,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발굴·접수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.

□ 2015년 상반기 개념계획서 접수·평가 결과를 살펴보면,

○ 과제 접수(1~2월) 결과, 총 256개 선정 예정 과제에 **1,331개 개념계획서가 접수**되어, **최종 경쟁률 5.2 : 1**을 기록했다. 이는 작년 해당 사업 경쟁률(4.3 : 1) 보다 **21% 증가한** 것이다.

- 접수된 개념계획서 1,331개 중 **산업부 R&D 참여 경험이 없던 중소·중견기업**이 제출한 과제는 **653개**(49%)이다. 이는 **2014년에 신규로 참여**한 중소·중견기업 수(263개) 보다 **크게 증가**된 것이다.

○ 접수된 개념계획서에 대한 개념평가(2~3월) 결과, **665개 과제가 개념평가를 통과**하여, 개념평가 경쟁률은 **2 : 1**을 기록하였다.

과제 접수 (1~2월)	개념평가 (2~3월)	개념평가 통과과제	본 평가(5월)	최종 선정과제 (6월)
1,331개	→	665개 (2:1)	→	256개 (2.6:1)

□ (**향후 평가방향**) 산업부는 개념평가를 통과한 과제 등에 대한 **본 평가(5월~)**에서 **평가 전문성 제고** 및 **역량 있는 수행기관 선정**에 **주력**할 계획이다.

① 그동안은 평가위원이 당일에 모여 평가하여 충분한 검토·평가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. 이에, 올해부터 내실있는 과제 검토를 위해 본 평가(대면평가)에 앞서 **평가위원이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검토**하는 **사전 서면검토를 2주간 실시**한다.

- 사전 서면검토 결과 **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과제 신청자에게 통보**하여 보완자료를 제출하고 **소명**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
* 사전 서면검토(평가 3주전 ~ 1주전) → 보완자료 제출(1주전) → 본 평가

②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과제 신청자간 상호 발표·토론을 거치는 **토론평가를 도입**한다. 상호 토론을 통해 **기술개발 방법론의 장·단점을 비교**하여 더욱 우위에 있는 신청 기관이 가려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.

- 정부가 품목만 제시하고, 세부 개발방식은 민간에 위임되어 **개발방식간 경합 및 토론이 가능**한 **중장기·대형 품목지정형 과제**에 적용할 계획이다. (23개 내외 예상)

* 지정공모형 과제는 세부 개발목표(RFP)가 이미 정해져 있고, 자유공모형 과제는 주제가 너무 다양하여 상호 토론에 어려움이 있어 품목지정형 과제에 적용

- **신청자 발표 및 상호토론**(과제당 발표 20분, 토론 60분) → 평가위원과 신청자간 **개별 질의·응답**(과제당 30분)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다.

  * 평가위원은 사업계획서 내용 전부를 볼 수 있으므로, **상호 토론시에는 공개 질의를 금지**하여 기업정보 유출을 최소화

③ 그 동안은 동일 과제에 대해서도 평가위원이 매번 달라져 **평가 일관성** 및 **평가위원의 과제 이해도**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. 이에, 선정평가부터 최종평가까지 계속 참여하는 **책임평가위원 제도를 도입**한다.

- 과제별 평가위원 중 **기술전문가 2명**은 기술개발 방향을 지속적으로 컨설팅하고, **사업성 전문가 1명**은 과제의 시장성·사업성 검토 및 사업화 전략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.

④ **역량 있는 수행기관을 선정**하기 위해 올해부터 평가항목에 **연구역량 지표를 신설**한다. (최대 20점)

  * (기존) 기술성 및 개발능력,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
    → (개선) 기술성 및 개발능력,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+ **연구역량(신설)**

- R&D 인력 등 **연구 인프라** 활용계획, **특허 인력**, 해당분야 **사업화 실적** 등을 평가하여, 향후 사업화까지 성공시킬 수 있는 역량 있는 수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.

□ 차동형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“산업부 R&D 사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**중소·중견기업 참여가 증대된 것은 매우 고무적**”이라며, “향후 **R&D 평가 전문성을 더욱 높이고, 역량 있는 수행기관 선정에 주력**함으로써 산업부 R&D가 더욱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.”고 밝혔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유법민 과장(☎ 044-203-4520), 신유철 사무관(☎ 044-203-452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